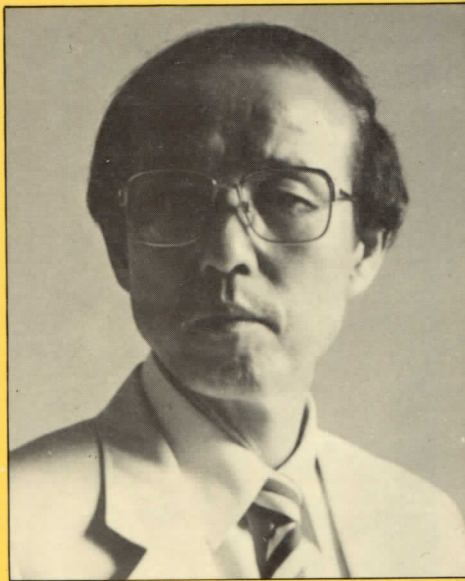


神의 총아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창단10주년 기념출판



장세종 번역희곡집

도서출판

기미글

20대 청년기에 무일푼으로 단신 渡美 프린시피아대학에서 수학하던 고학성의 꿈과 드라마에의 의지가 집대성된 작업으로 이 책은 의미를 지닌다. 미국유학 시절의 좌절된 학문생활, 그러나 상심하지 않고 부산 지역극계에서 부터 재출발한 장세종의 드라마에의 열정은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무대에 올려졌고, 이제 한권의 책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부산지역 극계에서도 초역작품을 언제 어디서나 공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희곡집은 지역극계

역자의 말

그동안 부산 연극계가 어려운 여건을 딛고 줄기차게 무대예술 활동을 해 오면서 부산문화예술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크게 기여해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나 도시의 발전상은 그 문화예술에 잘 반영되고 있다. 뜻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문화공간, 예술공연장, 재정지원 등이 중앙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상태이고 특히 연극예술 상황의 실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부산 지방문화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적었고 중앙의 작품들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작업을 단일하게 하고 있다는 자성의 소리도 높아지면서 부산 무대에서도 한국 초연의 신선한 작품들을 올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각성을 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러한 자성과 각성을 발전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중의 하나가 부산의 작가들이 창작을 계속하고 새로운 작품을 꾸준히 번역하며 무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기에 번역 소개하는 6개 외국작품은 외국작품집 출판을 목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연극계(특히 필자가 몸담고 있는 극단 레퍼토리시스템)의 집요한 강권에 의해서 한 작품씩 번역해서 공연을 해온 것이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되었다. 그동안 뜻있는 연극 동지들이 책으로 엮어 출판물 해보려는 권유를 여러번 받았으나 나에게서는 가당찮은 일이고 활자화해서 내놓을 만한 세련된 번역작업이 못 되므로 일축해 버렸다. 금년에 부산 극단「레퍼토리 시스템」이 창단 10주년을 맞으면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번역 외국작품을 출판하자는 단원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줄여 번역 외국작품을 출간하게 되었다. 미처 추고도하지 못했고 영미희곡을 전공하신 선배님들의 감수도 받지 못한 채 출간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작업을 계기로하여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고 연구하여 부산 연극계에 봉사의 일익을 맡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정리, 교정을 하는데 쏟은 극단단원인 박금순양의 노고에 감사한다.

序

劇團「부산페퍼토리시스템」의 대표인 張世鍾 선생이 번역한 희곡집 「神의 寵兒」는 여러가지 깊은 뜻이 담긴, 부산 演劇界로서는 기념비의 하나가 될만한 책이다.

첫째는, 부산에서 처음 출간되는 번역 희곡집이라는 점이다. 부산은 文化藝術에 있어 進取性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 . . 분야에서는 희곡이 창작되는 경우가 적고, 외국의 좋은 희곡을 직접 번역하여 공연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張世鍾 선생은 그 일을 해낸 것이다.

다음에는 「신의 총아」에 수록된 6편의 희곡은 1979년 부터 1984년 사이에 거의 부산극단 「부산페퍼토리시스템」에 의하여 공연되어 관객의 호응이 매우 높았던 작품들이며, 그것은, 부산은 물론 한국 연극사에 기록될 일이다. 부산의 연극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우리 연극의 진취적인 개척자의 역할을 1922년 부산의 국제극장의 「부활」공연 이래 60여년만에 비로소 다부지게 해낸 것이 된다.

이러한 막중한 의미를 가진 「신의 총아」의 출간이 극단 「부산페퍼토리시스템」의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산페퍼토리시스템」은 지금 부산에 있는 몇 개의 극단 가운데서 연륜은 짧지마는 공연횟수는 다른 극단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야동하는 생명력을 과시해 왔다. 황무지에 비유되는 부산의 예술풍토 속에서 하나의 연극이 공연되는데는 어렵다는 말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아픔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극단의 그 동안의 활발한 활동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위에 그 페퍼토리 가운데는 「신의 총아」에

수룩한 작품처럼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많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업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張世鍾 선생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편을 잡고 있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은 놀라운 일이다. 희곡을 다른 나라말로 옮긴다는 것은 그것이 모두 대사(台辭)의 교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한다. 소설의 그것에 견줄 바가 아니다. 張世鍾 선생은 「신의 총아」에 실린 6편 이외에 또 한편의 책이 될만한 희곡의 번역작품이 있다고 듣고 있다. 부산에서의 이러한 작업의 막중한 뜻에 대한 굳은 신념과, 부산의 연극이 외국의 앞선 희곡 제작술을 직접 들여와서 소화시켜야 세계 속의 부산 연극, 아니 세계 속의 한국연극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높은 사명감 없이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도 「테저드라마」의 출현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T·V드라마나 연극·영화의 시청자·관람자가 양적 팽창 다음에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 추세이다. 질적으로 높아진 이들 가운데는 소설처럼 자기 나름대로 드라마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테저드라마」를 더욱 선호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총아」는 그러한 「테저드라마」 애독자의 확대에도 큰 몫을 할 것이 틀림 없다. 작품들이 대부분 코메디로 재미 있게 읽히길 것이다.

부산 연극계에 살을 끼우고 시야를 넓혀줄 희곡집 「신의 총아」의 출간은 참으로 뜻깊고 기쁜 일이다.

예총부산지회 고문 朴 斗 錫

연극에의 길손

「군!」 우리가 존경하는 장 세종선생이 희극 회극 번역집인 「신의 총아」를 출간한다네. 지난해 「군!」이 창작 희곡집 「안개 주의보」를 출간해서, 부산 연극계의 활력과 충격을 불러일으킨 일에 연달아서, 부산 연극사에 '不忘碑'가 되겠기에 그 기쁨을 먼저 알리네.

연극을 어디 아무나 할 일인가. 무직, 무수업, 무주택으로 패가거려나, 미처 날뛰는 열정으로 하여 무인격(일상 생활면으로 볼 때)자로 되기가 심상이 아니던가. 디오니소스의 신화 발생의 배경이나, 그 신봉자들의 제례 의식이 온통 광기와 난장판이었음을 미뤄 볼 때, 그것은 어쩌면 연극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연극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 그런데도, 문명사 이래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연극은 중단된 적이 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지 않은가. 그러니 만큼, 오늘날의 연극사는 연극에 뛰어 들었던 수많은 개인들의 불행의 퇴적사요,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세워 둔 '不忘碑의 碑銘'이 아닌가 하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지구는 돈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위에서는 연극이 준비되고 공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끼고 존경하는 장 세종선생이나 「군!」과 같은 연극인들이 있는 중과일걸세.

내가 장 세종선생을 알게 된 지는 10년이 더 되었네. 그러면서도 최근까지 실상은 잘 모르고 지내 왔다네. 그 주된 인상은 도통 연극을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네. 언제 보아도 단정한 차림새와 거동, 가끔 연회석에서 마주쳐도 표정이나 말씨, 말투에 변동이 없는 태도 등으로 보아서, 천방 지축인 酒神이자 연극신인 디오니소스의 신도로서는 낙제감으로 비쳤기 때문일세. 다만 조금은 예외였던 것이, 어떤 종류의 연극이 공연되든 늘 그렇듯이 관람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극단 「부산 테퍼토리스시스템」의 소리 없는 단원이라는 점이 약간 수상쩍은 점이었나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바르지 못하거나 경우에 벗어나는 일을 만나면 안참는다든지, 원손이 하는 일을 바쁜손이 모르게 학생이나 남을 잘 돕는다는 특징을 지닌 점이라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장선생이나 「군!」의 공분모가 되어, 세평으로서는 디오니소스의 신도로서는 일견 부적해 보였다는

말일세.

그런데, 희곡 구조의 「反轉部」처럼 우리 장선생의 眞價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충격과 기쁨을 안겨 주고 있다네. 10년 세월의 극단 「부산 테퍼토리」의 대표작을 이어받아 특정한 반석 위에 올려 놓은 일이나, 거금을 들여서 도무지 돈이 안되는 희극 번역집을 출간하는 일들이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게다가, 상업성이나 대중성이 비교적 적은, 생활 어감이 주조인 지적인 희극 희곡들을 번역 출간한다는 것이 한국의 현대 희극 발전을 노리지 않고서야 생념하기가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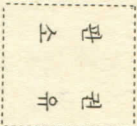
「군!」오늘의 장선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배일 속을 들여다 봐야 하네. 일찌기 20대 청년기에 무일본 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의 밑바닥을 헤매면서도, 포린시피아 대학 영문학과에서 2년 동안 수학하다가 부득사정으로 귀국, 독력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해 낸 분이라네. 학부에서는 영소설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아더 밀러의 현대의 비극 고전인 「세일즈맨의 죽음」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네. 말하자면, 이런 생활고와 포부와 소설과 비극을 소화해낸 연후에 희극과 연극 현장에 늠름한 줄 해서, 희곡 구조의 「反轉部」처럼 뛰어든 거라네.

그러니 만큼, 앞으로 중생토록 이분을 연극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 예상되고, 우리의 연극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진다네.

연극은 어느 예술보다도 '신바람'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배우들이나, 자칭 연출자들과 가치의 상대성을 무시한 절대적 비평도를 휘두르는 입방아꾼들은 가난한 부산 연극계에서도 가난하지 않은 앓을 것이네. 오, 신이며, 디오니소스신이며, 아무나 당신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차례

- 안나 크리스티 / 11
허무로 가득찬 사나이 / 107
프라자호텔 719호실 / 175
神의 총아 / 247



도서출판 기미골

장세종 번역 회곡집 1 / 神의 총아

1987년 9월 1일 초판 발행

1988년 9월 10일 재판 발행

역 자 / 장 세 종
발행인 / 안 채 식
발행처 / 도서출판 기미골
인쇄처 / 대성종합인쇄
인쇄인 / 이 금 상

주 600-0114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29번지 도서출판 기미골 ☎ 44-0568

역자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00-125번지 ☎ 54-2452

값 4,000원

※ 이 책에 수록된 작품은 역자의 허가없이 공연될 수 없습니다.
공연을 원하시는 분은 역자에게 사전 승낙을 취해 주십시오.